

-기도에서 삶으로: 나에게서 너에게로 시선을 돌리는 삶의 작은 실천 제안-

1. **개인적 실천:** 물을 '선물'로 대하는 일상 기도문 속 "우리가 물을 경외하고 당연히 하게 여기지 않게 하소서"라는 다짐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방법입니다.
 - 물 사용의 시각화와 절제: 샤워 시간을 1~2분 줄이거나 양치 컵을 사용하는 작은 행동을 통해, 지구 반대편에서 물을 길기 위해 수 마일을 걷는 여성과 아이들의 고통에 영적으로 동참합니다.
 - 미세 플라스틱과 화학 물질 줄이기: 미세 플라스틱으로 신음하는 바다와 해양 생물들을 기억하며 세탁 세제와 주방 세제를 친환경 제품으로 바꾸고, 섬유유연제 사용을 줄입니다. (미세 플라스틱의 주 원인 중 하나는 합성섬유 세탁 과정에서 나옵니다.)
 - 생수병(페트병) 사용 자제: 플라스틱 바다를 막기 위해 개인 텀블러를 항상 휴대하고, 정수기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입니다.
2. **공동체적 실천:** 본당이나 가정에서의 변화, 혼자보다는 가족, 혹은 구역모임이나 CLC 소공동체 안에서 함께 시작할 수 있는 실천입니다.
 - 일회용품 없는 모임 만들기: 소공동체 모임이나 본당 행사때 종이컵, 플라스틱 생수병, 일회용 접시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, 개인 컵과 접시를 가져오는 문화를 정착시킵니다.
 - 잔반 없는 식사: 토지 황폐화와 착취를 막기 위해 우리 땅에서 난 제철 음식을 필요한 만큼만 소비하고 음식을 남기지 않습니다. 식량 생산 과정에는 엄청난 양의 수자원이 소비되기 때문에, 음식을 버리지 않는 것이 곧 물을 아끼는 길입니다.
3. **사회적 연대:** 구조적 변화를 위한 기도문은 "우리의 무감각한 정책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일할 힘을 주소서"라고 청하고 있습니다. 구조적 불평등에 목소리를 내는 실천입니다.
 - 소비자로서의 거부와 지지: 원주민의 어장을 오염시키는 가스 개발이나 석유 기업, 혹은 불법 벌목과 착취를 자행하는 기업의 제품을 불매하고, 반대로 친환경적이고 공정무역을 실천하는 기업의 제품을 소비하려고 노력합니다.
 - 선거와 정책에 관심 가지기: 기도문의 청원처럼 "모든 시민의 물 접근권을 보호하고 토지 착취를 종식할 공직자들을 선출"하기 위해, 환경 문제와 기후 위기 극복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우는 정치인과 정책에 투표합니다.
 - 환경 및 구호 단체 후원: 물 부족 국가에 우물을 파주거나 가난한 기후 난민들을 지원하는 가톨릭 재단이나 환경 시민 단체에 정기 후원을 시작하거나 자원봉사로 연대합니다.

-동중부 CLC 사도부-